

한강 “계엄상황에 큰 충격…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를”

노벨상 수상 공식 기자회견·강연
비상계엄 비판·고향 광주 언급
“계엄 당시 시민들 용기 느껴져”
소설 ‘소년이 온다’ 집필 배경도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지난 6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노벨박물관에서 수상자만을 위한 특별한 방명록인 박물관 레스토랑 의자에 서명을 남긴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력이나 강압으로 언로를 통제하는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인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12·3 계엄사태와 고향 광주에 대해 언급해 주목받고 있다.

한강 작가는 지난 6일 오후 1시(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스웨덴 한림원에서 열린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한강 작가는 소설 ‘소년이 온다’를 쓰기 위해 1979년 말부터 진행했던 계엄 상황에 대해 공부를 했는데, 2024년 다시 계엄 상황이 전개된 것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 작가는 이번 비상계엄이 과거의 계엄과 다른 부분은 모든 상황이 생중계돼 모두가 지켜볼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비상계엄 상황에서 시민들은 SNS를 통해 국회가 봉쇄된 상황, 계엄군이 국회 창문을 깨고 침입하는 모습 등을 공유했다.

한 작가는 군인들의 행동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맨몸으로 장갑차 앞에서 멈추려고 애썼던 분, 맨손으로 무장한 군인들을 꺼안으며 제지하려는 모습 등을 보며 시민들의 진심과 용기가 느껴졌고 젊은

경찰과 군인들의 태도도 인상 깊었다”며 “명령을 내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극적인 것이었겠지만 보편적인 가치의 관점에서 본다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고통을 느

끼면서 해결책을 찾으려는 적극적인 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력이나 강압으로 통제하던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소망했다.

한 작가는 7일(현지시간)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수상자 강연에서는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은 소설 ‘소년이 온다’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빛과 실’이란 제목의 강연을 통해 12살 아버지의 서재에 꽂힌 광주 사진첩을 보며 ‘인간이 어떻게 이토록 폭력적일 수 있는가’ 또 ‘압도적 폭력의 반대편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가 본 5·18을 기록한 사진첩은 유족들과 시민들이 비밀리에 제작해 유통한 책이었다.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책자를 본 그는 “당시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지만 인간의 잔혹성에 대한 근원적인 의문을 품게 됐다”고 덧붙였다.

세월이 지나면서 사진첩을 보며 떠오른 의문을 잊어간 한강 작가는 2012년 봄 ‘삶을 꺼안는 눈부시게 밝은 소설’을 쓰려고 애쓰던 어느 날, 그 의문들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그는 “불가능한 수수께끼를 대면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글쓰기만으로 그 의문들을 꿰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망월동 묘지에 찾아가 한강 작가는 ‘광주가 하나의 고향이 되는 소설이 아니라, 정면으로 다루는 소설을 쓰겠다’고 다짐했고, 900여명의 증언을 모은 책을 구해 매일 9시간씩 읽으며 완독했다.

집필 과정에서 한강 작가는 “인간의 잔혹성과 존엄함이 극한의 형태로 동시에 존재했던 시공간을 광주라고 부를 때, 광

주는 고우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되고,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했다.

7년여에 걸쳐 완성한 ‘작별하지 않는 다’에 대한 설명을 이어간 한 작가는 “아직 다음 소설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나 어쨌든 나는 느린 속도로나마 계속 쓸 것이다. 지금까지 쓴 책들을 뒤로하고 앞으로 더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 작가는 또 1979년 광주에서 서울로 이사하기 전 8살 어린 한강이 쓴 시를 소개하며 자신의 삶과 소설의 집필 과정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한강 작가는 “지난해 1월,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낡은 구두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상자에는 한강 작가가 유년 시절에 쓴 일기장들이 담겨 있었다. 포개어진 일기장들 사이에는 ‘시집’이라는 단어가 연필로 적힌 얇은 종철 제본도 함께 발견됐다. 그는 “‘시집’은 A5 크기의 갱지다섯 장을 받을 접은 스테이플로 중첩한 책이었다”면서 “책자의 뒤쪽 표지에는 1979라는 연도와 내 이름이, 내지에는 모두 여덟 편의 시가 표지 제목과 같은 연필 필적으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 후 14년이 흘러 처음으로 시를, 그 이듬해에 단편소설을 발표하며 스스로 ‘쓰는 사람’이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을 마친 한 작가는 오는 10일(현지시간) 시상식 무대에 올라 노벨문학상 메달과 증서를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에게 받을 예정이다.

정성아 기자 sangja.jeong@jnilbo.com

‘K-POP’ 떴창에 아이돌 응원봉…변화하는 집회 패러다임

국회 앞 탄핵 집회 이모저모

촛불 대신 개성 살린 도구 활용
개사한 아이돌 노래로 하나돼
식당·카페 선결제로 참가자 응원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시민들이 챙겨온 응원봉이 어둠속에서도 빛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된 지난 7일 성난 민심의 촛불이 ‘응원봉’으로 바뀌고 ‘K-POP’ 떴창을 부르는 등 집회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응원봉과 개성 넘치는 깃발들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했고,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수십만명의 인파는 출신도 세대도 달랐지만 한 목소리로 ‘윤석열 탄핵’을 외쳤다.

●‘임 행진곡’ 대신 로제의 ‘APT’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린 지난 7일 오후 6시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대신 아이돌밴드 데이식스의 ‘웰컴투더쇼’,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지드래곤의 ‘빠딱하게’ 등 K-POP 음악을 개사한 노래들이 울려 퍼졌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로제의 ‘APT’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투표해 투표해’로 개사하며 함께 불렀다. 김연자의 ‘아모르파티’, 남진의 ‘동지’ 등 중·장년층을 위한 노래도 흘러나왔고 시민들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세대차를 떠나 한 목소리로 떴창을 하며 춤을 췄다.

촛불 모양의 LED 응원봉을 높게 든 정호진(52)씨는 “모르는 노래도 있지만 금

세 제가 아는 노래들이 나와 함께 부를 수 있었다”며 “노래로 시민들이 하나된 모습이 인상 깊다”고 말했다.

●촛불 대신 아이돌 ‘응원봉’
비상계엄 선포 이후 연일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가 열린 가운데 각자의 개성을 뽐내는 ‘응원봉’이 새로운 시대의 촛불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탄핵에 동참하라”고 외치는 시민들 사이에서는 형형색색으로 빛나는 불빛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이 들고 온 것은 K-POP 콘서트에 쓰이는 ‘응원봉’이었다. 인기그룹 ‘NCT’의 직육면체 응원봉, 다이아몬드 모양의 ‘사이니’ 응원봉, 스타워즈 시리즈의 광선검을 들고 온 시민들도 있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강아지 발 냄새 연구회’, ‘혼자 온 사람들’ 등 참신하고 유머러스한 깃발들을 들고 있기도 했다. 또 일부 시민들은 단두대 모형이나 바게트 모양의 LED 등 프랑스 혁명을 떠오르게 하는 소품을 가져오기도 했다.

응원봉에 ‘탄핵’이라고 글씨를 써서 붙인 박수진(22)씨는 “5년간 응원하던 아

이돌 가수의 응원봉을 들고 왔다”며 “집회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었는데 진짜 촛불을 들고가면 바람에 꺼질 것 같아 밤에도 빛나는 응원봉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집회 오셨죠? 그냥 드세요”

사정상 집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람들은 국회 인근 카페와 식당 등에 선결제를 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모습이 꼭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주먹밥을 보는 듯 했다.

지난 6일부터 엑스를 비롯한 각종 소셜 미디어(SNS)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인근 카페, 빵집, 식당 등 선결제를 해줬다는 시민들의 인증글이 이어졌다.

김치찌개, 국밥, 커피, 샌드위치 등 다양한 메뉴를 매장에 선결제 해둔 덕에 집회 참가자들은 언제든지 가서 무료로 먹을 수 있었다.

국회 인근의 한 식당은 김치찌개 정식을 선결제한 시민들이 이어져 최소 200인분이 미리 팔리기도 했고, 일부 매장은 메뉴 소진으로 더 선결제를 받을 수 없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국회 인근서 카페를 운영하는 김모(44)씨는 “커피 100잔을 선결제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다”며 “카페를 비울 수 없어 집회에 참여할 순 없으나 응원하는 마음으로 나눔에 동참하고자 선결제된 커피가 소진됐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서울 민천기 기자

‘日강제동원 명예회복 투쟁’ 이금주 회장 추모제

8일 5·18교육관 3주기 추모행사
남편 강제징용 전사…투쟁 ‘외길’
“유지 받들어 쟁기 다시 갈겠다”

는 1992년 ‘광주천인소송’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만 7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왔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해 외길을 걸어온 고(故)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 추모제를 열고, 고인의 유지를 잇기 위한 추모·계승의 시간을 가졌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8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5·18교육관에서 이금주 회장 3주기 추모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20년 평안남도 순천에서 태어난 이금주 회장은 1940년 남편 김도민씨와 결혼했지만, 결혼 2년만인 1942년 남편 김씨가 일제가 저지른 태평양전쟁에 동원돼 남태평양 타라와섬으로 끌려가게 됐다.

9개월만에 남편의 소식은 아예 끊겼고, 1945년 4월이 돼서야 1년5개월여전 전투 중 사망했다는 내용의 전사통지서만 돌아왔다. 해방 이후 광주에 정착한 이 회장은 1987년 6월 민중항쟁 이후, 본격적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목소리 대변에 나섰다.

이듬해인 1988년 69세의 나이로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장을 맡은 그녀

이 회장은 일제 피해자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끝내 일본의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한 이 회장은 2021년 12월12일 102세를 일기로 한 많은 삶을 마쳤다

이날 추모제에서는 이금주 회장 평전 ‘어디에도 없는 나라’ 낭독과 추모 영상 상영에 이어 최근 ‘양금덕 할머니 제3차 변제 수용’과 관련해 회원들로부터 시민모임의 향후 방향과 바람을 듣는 등 고인의 유지를 잇기 위한 추모와 계승의 시간이 진행됐다.

이국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시민모임은 피해자보다 일본을 더 걱정하는 윤석열 정권과 맞서 지난 2년 넘게 치열하게 싸워왔다. 그 과정에 적지 않은 상처도 받았다”며 “일본에서의 소송에서 17번이나 기각당한 이금주 회장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아직 16번 더 쓰러질 기회가 남아 있다. 부족하지만, 쟁기를 더 깊게 갈아 역사적 책무가 있는 한 다시 일어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윤준명 기자**

@jnilbo
진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